

#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온오프 놀이터로 운영

### 14일부터 18일까지 ACC 등 23곳... 23개국서 102여명 작가 참여 '광주의 빛' 주제... 파사드공연, 전시, 스탬프투어 등 볼거리 '풍성'

광주광역시시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2020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을 온오프 미디어아트 놀이터프로젝트로 추진한다.

광주시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이번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은 놀이터프로젝트 개념을 도입해 미디어아트에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기존 문화예술행사와 연계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서 시민들과 예술인이 어우러지는 축제로 변화와 혁신을 시도한다.

주제는 '광주의 빛 빛과 공존의 미학'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과 광주시 일원에서 다양한 연계프로그램 및 문화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먼저 지난 6일부터는 미디어아트 투어전, 루키전, 대학생 공모전 등이 시작됐으며, 14일에는 본전시, 국제교류전, 특별전 등이 오픈된다.

또 본 행사에 앞서 14일 오후 7시부터 열리는 페스티벌 서막행사는 '광주의 빛'을 주제로 열리는 이용섭 시장의 영상메시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공연 온라인 중계 등이 진행돼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안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에서 펼쳐지는 본 전시에는 지역을 포함한 국내외 유명 미디어아티스트 13명의 다양한 작품들이 가을밤 도시를 은은하게 밝히며 공존하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의 관계와 삶의 조건에 대해 고찰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광장에서 진행되는 국제교류전에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를 대표하는 13개국 13개 도시의 작가들이 참여해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간의 끈끈한 빛의 벨트를 구현하는 '공존의 노래'를 완성한다.

옛 전남도청 정면부 외벽에 투사되는 특별전-미디어파사드는 '광주의 빛'을 주제로 마련됐다. 옛 전남도청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살아있는 현장이며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미디어아트페스티벌 특별전에서는 광주와 국내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건물의 외벽에 투사돼 특별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아시아, 미국 등 11개국 작가가 참여하는 미디어아트 투어전 등은 9개의 미술관과 7개 대안공간,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아트광주(온라인), 아트피크닉, GSAF광주소셜아트페스티벌과 연계해 운영된다.

또 전국 공모로 진행되는 청년작가 루키전과 차세대 미디어아티스트를 발굴하는 대학생 공모전이 이번 페스티벌에서 처음으로 선보여진다.

이번 프로젝트는 당초 빛고를 광주를 문화관광형 체류 도시로 선도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메인광장축제와 어린이 놀이터, 페어리드 등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축소 운영하기로 했다.

행사 내용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관람은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하는 협력형 문화사업으로 광주지역 23곳 문화예술공간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이자 광주의 미래적 문화정책을 상징하는 인공지능, 실감콘텐츠 등 첨단기술을 연결한 미디어아트 가능성을 시민과 공감하는 계기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영 시문화관광체육실장은 "시민들이 국내외 미디어아트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다양하게 구성해 전시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차량 화재에 대비한 차량 엔진룸 강제개방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광주소방 제공

## 광주소방, 차량화재 대비 엔진룸 강제개방 훈련

광주소방안전본부는 13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북구 일곡동에 위치한 폐차장에서 차량 화재에 대비한 차량 엔진룸 강제개방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구조대원 85명이 참여하며, 차량 화재 시 차량 엔진룸 내부에 있는 개폐장치를 신속히 개방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차량은 제조사에 따라 엔진룸 잠금장치의 개수(1·2·3개 등)가 다르며, 국산차의 경우 잠금장치의 수량이 1개지만 외제차는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또, 차량 화재는 매년 평균 103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지역 외제차 보유대수는 2017년 5만1591대에서 2020년 8월 기준 6만7021대로 3년간 약 30% 증가해 이에 따른 다양한 차량의 엔진룸 개방 대응훈련이 필요하다. 시 소방안전본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국내외 제조사별 차량 엔진룸 잠금장치를 분석한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소방관서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박은진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광주YMCA의 역사와 활동상을 소개하는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YM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 단체가 우리지역에 기여한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담아가 기획됐으며,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는 총 4부로 운영된다. 제1부 '100년의 역사, 미래를 열다'는 3·1운동의 경험을 되살려 1920년 최흥중 목사 등의 주도로 광주YMCA를 창설한 과정과 의의, 당시 청년운동의 산실인 광주YMCA 회관의 변화 등을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제2부 '민족운동의 기틀이 되다'는 1920~1930년대 광주YMCA의 여러 활동 중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광주YMCA는 가난과 성 불평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빈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야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당시 광주YMCA가 운영한 야학에서 활동한 교사 중에는 훗날 소설가로 유명한 박화성도 있었다. 전시는 당시 야학운동과 관련된 유물과 사진, 신문 등을 통해 야학운동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시회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광주YMCA의 역사와 활동상을 소개하는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YMCA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이 단체가 우리지역에 기여한 공로와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담아가 기획됐으며, 오는 14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전시회는 총 4부로 운영된다. 제1부 '100년의 역사, 미래를 열다'는 3·1운동의 경험을 되살려 1920년 최흥중 목사 등의 주도로 광주YMCA를 창설한 과정과 의의, 당시 청년운동의 산실인 광주YMCA 회관의 변화 등을 사진자료를 통해 소개한다.

제2부 '민족운동의 기틀이 되다'는 1920~1930년대 광주YMCA의 여러 활동 중 교육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 시기 광주YMCA는 가난과 성 불평등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얻지 못한 빈민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야학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당시 광주YMCA가 운영한 야학에서 활동한 교사 중에는 훗날 소설가로 유명한 박화성도 있었다. 전시는 당시 야학운동과 관련된 유물과 사진, 신문 등을 통해 야학운동의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일제강점기부터 지역 사회운동을 이끌어온 광주YMCA의 역사와 활동상을 소개하는 '영맨, 광주를 움직이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광주시 제공

## 광주YMCA 창립 100주년 기념... 14일부터 12월31일까지 창설 과정·의의, 회관 변천사 자료 통해 광주 현대사 재조명

제3부 '도시에서 농촌으로'에서는 광주YMCA가 일제의 수탈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의 삶에 눈을 돌려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섰던 이야기를 소개한다. 광주YMCA는 당시 빈곤과 높은 문맹률에 시달리던 농민들에게 각종 강습회와 야학을 통해 글을 가르치고 신지식을 전달했고 농업실습학교를 열어 빈곤탈출의 방법을 함께 고민했다.

제4부 '시민운동과 지역발전'에서는 엄혹한 개발독재의 시기에 광주YMCA가

펼친 민주화운동을 다룬다.

1971년 시작한 '광주Y의 시민난단'은 민주화와 지역현안 등 시의성 높은 주제로 지역여론의 공감을 샀으며, 이 시기에 광주YMCA는 낙후된 광천동에서 지역개발운동을 펼쳤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전시는 당시 광주YMCA의 활동을 통해 광주 현대사를 재조명해본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역사민속박물관(062-613-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복 기자 boh@

## 전남도, '2020 소금박람회' 개최

16~18일 다양한 비대면 프로그램

전라남도는 해양수산부,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오는 16일부터 3일간 '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지난 2009년 시작된 '소금박람회'는 올해 '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천일염'이란 주제로 펼쳐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안전한 관람과 물건 구매가 이뤄질 있도록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천일염 주산지인 신안군과 영광군에 마련된 온라인 스튜디오 및 홍보관의 생생한 현장 상황을 박람회 공식 누리집(<http://www.naturalseasalt.kr>)과 유튜브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천일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코자 박람회 누리집에 '명품 천일염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상품을 충분히 검색해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 누리집을 통해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소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윤규진 기자

## 광주문예회관 '포커스 시리즈 VI' 16~17일 기획공연 선보여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포커스 시리즈 6> 공연으로 오는 10월 16일~17일에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라흐마니노프의 명곡으로 채워진 이 작품은 2016년 초연 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성황리에 마치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작품은 러시아 천재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숨겨진 3년에 관한 이야기다. 러시아 마지막 낭만주의 연주가 겸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1897년 초연된 교향곡 1번이 평단의 혹평을 받는다. 그 충격으로 3년간 아무곡도 작곡하지 못한 채 슬럼프에 빠진 그에게 찾아온 정신의학자 '니콜라이 달' 박사와의 만남, 그 시간 속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은 배우가 펼쳐 보이는 밀도 높은 연기와 무대 위에 자리한 제3의 배우라 할 수 있는 피아니스트의 화려한 연주에 바울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현악 4중주가 함께하여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욱 깊이 있게 들려준다.

뮤지컬 '라흐마니노프'는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역에 박규원, '니콜라이 달' 역에 유성재가 맡으며, 라흐마니노프의 아름다운 선율을 더욱 깊이 있게 들려줄 피아니스트로 김기경이 출연한다.

/김정관 기자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나주 문화상품 출시

# 나주 배꽃 (梨花) 무산

나주의 시화인 배꽃을 모티브 삼아 톡톡 튀는 팝아트로 재해석한 지역작가의 배꽃 디자인을 활용 제작

구매처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상품문의

061-335-0160, 335-0110

나주에서 살고, 나주에서 만든다!  
LOCAL CRAFT 나주 로컬크래프트  
Made in NAJU